

<매체와 표현 Medium and Expression>

예술품으로 변신한 일상의 사물



로무알드 하조우메, 물 카고, 2012



함경아, 오데사의 계단, 2008

수업개요 : 마르셀 뒤샹의 '샘',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 아르망 피에르 페르낭데의 '장기주차' 외 로무알드 하조우메의 '기름 카고', 함경아의 '오데사의 계단' 등 오브제를 소재로 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생활 주변에서 우연하게 발견한 일상의 사물들도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대상연령 : 11 - 13세

키 워 드 : 발견된 오브제, 일상의 사물, 예술품

논 의 어 : 일상의 사물도 예술품이 될 수 있을까?

배 경 : 매체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 수단을 의미하는 낱말로 미술의 표현 재료와 도구를 총칭한다. 즉 예술가가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연필, 물감처럼 전통적인 표현 도구와는 달리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물들도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주요 도구가 됨으로써 현대미술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함경아는 '오데사의 계단'을 통해 평범한 일상의 사물을 시대

와 사회의 맥락과 결부시킴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탄생시킨다. 작가는 전직대통령의 빌라를 수리하며 나온 부산물들을 영화 '전함 포템킨(1925)'의 명장면에 비유하여 재구성하고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구조를 계단을 통해 드러낸다.

또한 아프리카 베닌 출신의 로무알드 하조우메는 석유 밀수에 사용된 흥미로운 형태의 오토바이를 전시장에 가져다 놓고 삶과 죽음, 그리고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이처럼 발견된 오브제는 일상의 사물들이 작가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그 사물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발견된 오브제와 관련된 이번 수업은 보편적인 삶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오브제를 발견하고 선택하여 의미를 생성해봄으로써 일상의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과 비평적 안목을 기르게 한다. 또한 감상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환경,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예술을 통해 이러한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업 과정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르셀 뒤샹과 파블로 피카소, 아르망 피에르 페르낭데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발견된 오브제에 관심 가지기</li> <li>-마르셀 뒤샹은 기성품인 남자용 소변기에 사인을 한 다음 '샘'이란 제목을 붙여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li> <li>-파블로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낱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li> <li>-아르망 피에르 페르낭데의 '장기주차'는 크기가 어느 정도 일까요? 실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일까요?</li> <li>○ 사소한 일상의 사물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li> </ul>	<p><b>Tip</b></p> <p>피카소는 낡은 자전거 부속품으로, 아르망은 폐물인 자동차를 이용해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p> <p>현대미술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본다.</p>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무알드 하조우메와 함경아 작가의 작품 감상하기</li> <li>-작품의 주제, 표현 방법, 특징 등을 찾아보고, 작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생각의 정원Garden of Think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작품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나요?</li> <li>-두 작품의 특징적인 점은 각각 무엇인가요?</li> <li>-'오데사의 계단'에 등장하는 계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목은 어떻게 붙여졌을까요?</li> <li>-로무알드 하조우메는 석유와 물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를 왜 전시품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과연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경아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작가들의 표현방식에 대해 알아보기</li> <li>-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표현 매체를 선택한다고 하였나요?</li> <li>-작가들은 사회·문화 현상이나 사회문제 등을 작품 속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li> <li>○ 일상의 사물을 이용한 작품 계획서 만들기</li> <li>-만일 내가 일상의 사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든다면 어떤 것을 소재로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일상</li> </ul>	<p><b>Tip</b></p> <p>함경아 인터뷰 동영상 : <a href="http://navercast.naver.com">http://navercast.naver.com</a></p>

	의 사물들을 낯설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한 다음 '나만의 작품 계획서'를 만들어 봅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감상활동과 계획서 작성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이야기하기</li> <li>○ 현장 활동 안내</li> <li>-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로무알드 하조우메와 함경아 작가의 작품을 직접 감상하여 봅시다. 발견된 오브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li> </ul>	

**▶ 이렇게 해 보세요.**

'나만의 작품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작품을 완성하여 보세요. 그리고 전시장에서 살펴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느낀 점을 비엔날레 홈페이지 '디지털 투어'란에 올려서 다른 감상자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예술은 소통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오브제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스킨라 학파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앞에 던져지거나 놓인 어떤 것'이다. 영어로는 오브젝트(object), 프랑스어로는 오브제(objet)로서 일반적으로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말로 현대미술에서는 특정한 사물이 본래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거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진 대상이 됨으로써 일상의 사물이 예술작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 작품 설명**

마르셀 뒤샹은 붓과 캔버스, 물감 대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활용하여 작품화 하는 새로운 제작 방식을 개척하였는데 이를 '레디메이드(Ready made)'라고 한다. 그는 '화가란 아이디어를 다루는 사람이며,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철학자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레이메이드'를 통해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 곧 미술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하였다.

해학적인 느낌을 주는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는 낡은 자전거의 부속품인 안장과 손잡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도 미술은 창작될 수 있으며 같은 사물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망 피에르 페르낭데의 작품 '장기주차'는 59대의 폐차와 1600톤에 달하는 시멘트로 제작된 높이 19.5m의 조형물이다. 아르망은 현대 물질문명의 부산물인 여러 가지 폐물을 이용한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일상의 사물을 해체하거나 재구성하여 끊임없이 반복하고 집적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 ● 영화 '전함 포템킨(1925)'

1900년대 초기 러시아 차르의 폭압에 대항하여 오데사 항구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반란을 진압해야 할 해병의 다수는 노동자들과 동조하여 명령에 항거하였고, 노동자들을 봉기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차르의 군대가 진격해 와 약 2천명의 사람들을 살상하였는데 '전함 포템킨'이란 영화에서는 오데사 시의 계단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몽타주 기법으로 처리하여 러시아 사회의 위압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 작품 계획서 >

이름		일시	
작품제목			
준비물			
작품소개 및 특징			
작품 스케치			